

세속 일 버리고 자연에 은둔하니 '능엄삼매' 펼쳐지네

57 거사불교의 지취 어린 청평사

일반적으로 부도는 스님들의 행적을 기리고 사리나 유골(遺骨)을 안치하기 위해 조성한 석조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도와 더불어 세우는 부도비(부도탑비)에는 부도 주인의 생애와 사상, 당대의 시대적 상황 등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부도와 비는 불교사, 금석학, 미술사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9세기 중엽에 설악산 진전사에 세워진 도의(道義) 국사의 부도가 이 땅에 조성된 부도의 시원(始原)이라면, 지난 11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도와 비가 세워졌을까요? 유명, 무명의 스승들이 풀꽃처럼 피었다 스러지며 흘러 온 우리 불교사는 부도와 탑비를 통해 읽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적지 않은 부도와 비는 전란(戰亂)과 시절인연의 혼탁함에 따라 무너지거나 파손돼 사라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옛 절터와 고찰에 산문의 주역이거나 왕사 국사를 지낸 걸출한 스승들의 부도와 탑이 전해져 불교사의 유구한 물줄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부도는 스님들의 생애를 기리는 것이지만 스님 못지않은 신심과 수행으로 살다간 재가불자의 행적이 부도로 조성돼 기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려 전기의 눈 밝은 학자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의 부도가 오봉산 청평사 입구에 모셔져 있습니다. 식암(息庵)거사, 청평(淸平)거사, 희이자(希夷子) 등의 호로 불리던 이자현 거사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나아갔으나 29세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일체의 세간 인연을 정리한 뒤 자연으로 은둔했습니다.

우리는 거사불교의 흐름을 이야기 할 때, 부처님 당시 인도의 유마거사와 중국의 방가사 그리고 한국의 부설거사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현도 거사 신분으로 불교 경전에 해박하고 신정을 닦아 무애의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행에 매진하면서 학자와 스님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 경전의 너른 들판을 함께 가꾸고 추수한 품이 너른 학자며 수행자였습니다.

청평사를 가기 위해서는 소양강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방법과 춘천 외곽도로를 지나 배후령을



이자현 거사가 조성한 고려시대의 연못

넘어 오음리에서 오봉산을 넘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마다 녹음이 짙은 6월의 국도를 달립니다. 배후령을 넘으면서 강원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청평사 아래에 이르러 산은 보이지 않고 빼곡한 숲을 이룬 키 큰 나무들이 내뿜는 싱싱한 기운에 저절로 배가 불러옵니다.

힘차게 쏟아지는 구송폭포를 지나 청평사 입구에 닿으면 왼쪽으로 얇은 담을 둘러친 부도밭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거기 부도밭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듯 그냥 지나칩니다. 돌계단 입구에서 두 마리의 돌사자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듯 입을 벌리고 앉아 있습니다.

부도밭은 다소 웅장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좁은 공간이지만 왼쪽에는 20여 년 전에 조성된 석진 스님의 부도와 건립기념비가 서 있고 오른쪽에 이끼를 뒤집어 쓴 이자현 거사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안내판에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진락공 이자현 부도(眞樂公 李資玄 浮屠) 부도는 고승(高僧)이 죽으면 화장(火葬)해 나온 사리나 유골을 안치하는 석조 구조물이다. 이 부도는 청평사에 들어와 도를 닦았던 고려시대의 뛰어난 학자인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의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자현의 호는 식암(息庵) 또는 희이자(希夷子)였는데, 인품이 뛰어났던 그를 흠모(欽慕)한 고려의 인종(仁宗)은 그가 세상을 떠나자 진락(眞樂)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렸다.

이 부도의 양식은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이고 화강암으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180cm이다.

국사나 왕사가 임직하면 임금이 시호를 내리듯 이자현 거사의 죽음을 애도한 고려 인종도 시호를 내려 그의 생애를 기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문하 제자들이 스님들의 예법에 준해 사리탑을 세운

고려의 학자 이자현 29세에 은둔 수행하며 후학 지도 보기 드문 거사 부도, 후학들이 무애자재의 생애 기려

점으로 보아 그의 학문과 무애자재한 삶이 얼마나 존경받았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부도만 세웠는지, 탑비도 함께 세웠는데 유실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부도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평사와 이자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을 전해주는 자료는 '진락공공주 청평산문수원기'입니다. 고려 인종 8년(1130)에 세워진 비에 새겨졌던 글인데 현재 비는 남아 있지 않고 그 비문이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돼 있습니다. 비문은 청평사의 역사적 내력과 이자현 거사의 생애 등이 자세히 기록된 본문과 문하 제자들이 스승을 추모하고 제사하는 글로 나뉘져 있습니다.

청평사 마당에는 '진락공공주 청평산문수원기'를



환적당과 설화당의 부도. 두 스님의 전기는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새긴 비석이 서 있습니다. 전해지는 비문과 탁본, 비첩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문을 복원해 2008년에 세운 것입니다. 매끈한 오석으로 세워진 비의 앞면에는 본문, 뒷면에는 유태가 새겨져 있습니다.

'춘천의 청평산은 옛날의 경운산(慶雲山)이고 문수원(文殊院)은 옛날의 보현원(普賢院)이다'로 시작되는 비문은 당대의 문인 김부철이 지었습니다. 글

니. 그 정황을 비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후에 희이자가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도적이 사라지고 호랑이와 승냥이의 자취가 끊어졌으므로 산의 이름을 청평산으로 바꾸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문수보살이 나타나셔서 법의 요체를 가르쳐 주셨으므로 사찰의 이름을 문수원으로 바꾸고 건물을 더 지었다. (중략) 원수 4년(1089)에 대약 서승(大藥署丞, 고려의 관직)으로서 벼슬을 버리고 세속을 벗어났다. 임진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면서 스스로 맹세하기를 '이후로 다시는 서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학문은 살펴보지 않은 것이 없지만 불교의 이치를 탐구하면서 특히 선의 교요함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이야기 했다. 일찍이 <설봉야록> 중의 '하늘과 땅이 모두 눈인데 너는 어디를 향하여 웅크리고 앉아 있는가'라는 구절을 보고서 그 말에 분명하게 깨달았다. (중략) 산에 머물 때에는 오직 채소를 먹고 해진 옷을 입으면서 검약하고 청정한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중략) 일찍이 문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대장경을 모두 보고 여러 종류의 책을 모두 읽어 보았는데 <수능엄경>이야말로 심종(心宗)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으로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밝혀 주었다.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써 읽지 않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 하고 곧 문하의 제자들로 하여금 읽고 공부하게 하니 배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이자현 거사는 세속을 떠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았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또 후학을 가르치는 보살행을 통해 삶의 가치를 고양시켰던 것입니다. 세속과의 인연을 철저히 끊었고 고려의 선불교에 <수능엄경>을 집목시켰던 점 등이 주목됩니다. 비문에 전하는 이자현 거사의 마지막 말씀은 '사람의 목숨은 영원하지 못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 슬퍼하지 말고 도로서 마음에 품으라' 하는 당부였습니다.

음기로 새겨진 '제문'은 이자현 거사와 평소 친분이 있어 법담을 즐겨 나누었던 혜소(慧素) 스님이 짓고 탄원 스님이 글씨를 썼습니다. 혜소 스님은 대각 국사 의천 스님의 제자입니다. 제문은 여러 부분 걸락돼 완전하게 해석되지 않지만 후학들이 스승을 기리는 마음이 애절하고 엄숙하게 묻어납니다.

이자현 거사가 조성한 고려 영지를 지나, 청평사 중심 영역에서 왼쪽으로 난 길은 적멸보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탈문에 이르기 전 오른쪽으로 2기의 팔각원당형 부도가 서 있습니다. 청평사에서 수행했던 환적당(幻寂堂)과 설화당(雪花堂)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식이나 크기가 엇비슷해 같은 시대의 스님인 듯 하지만 자세한 전기는 알 수 없습니다. 키 큰 적송들이 빼곡한 숲에 고요하게 앉아 있는 부도는 서로 마주보며 대화라도 나누는 듯합니다. 숲에는 이름 모를 새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글=임연태(시인·본지논설위원) mian1@hanmail.net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日江스님께서 정리하신 상용의식

책을 내면서...

지금까지 갖가지 의식에 대한 절차나 예법을 기록한 책이 많이 나와 있으나 초심자가 이용하기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소개하는 각종의식 집은 조예가 없는 사람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의식진행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아무쪼록 본 의법이 범의의식을 진정한 염불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많이 활용되어 중생계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辛卯 편집인 日江 합장

사용하기가 간편하여 스님들에게 최고 인기 판매 중!



예경 권공의식집

예불에서부터 불공에 이르기까지 목탁, 요령, 합장표시와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의식 순서대로 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18쪽 | 값 15,000원



불상 점안 의식집

부처님을 모신 후 불상점안 의식은 이 책 한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46배판 | 59쪽 | 값 7,000원



천도(49)재 의식집

천도재, 구병시식, 지장불공, 관음시식 등 재 의식을 초보자도 쉽고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순서별로 되어 있다.

46배판 | 123쪽 | 값 12,000원



고사의식집

가택 평안을 위하여 사용되는 고사의식집이 알기 쉽게 편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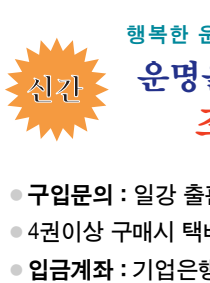
46배판 | 130쪽 | 값 13,000원



다비의식집 (2010신간)

누구나 간절히 기다리던 의식집, 송가다비편과 재가다비편이 일찍 후 처음으로 시신을 대하는 순서부터 화장, 매장 등 의식절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설명으로 누구나 당황하지 않고 자신있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46배판 | 158쪽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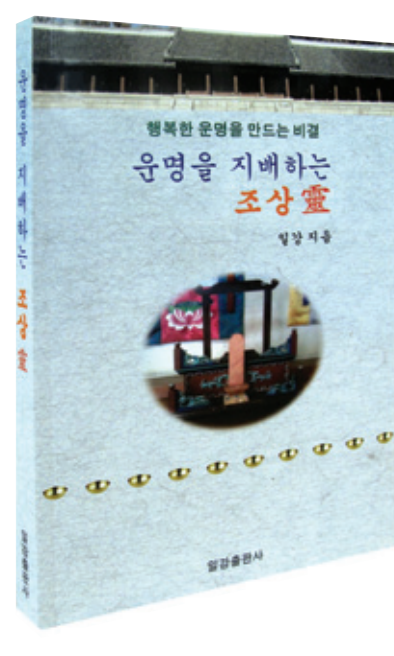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신간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7-8543
● 4권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입니다.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 천우중

신간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비결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靈

행복한 삶의 길을 터주는 보물열쇠! 바로 이 책 한권으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 모두가 염원하던 책! 드디어 완성 출간!
- 엄청난 영혼과 운명의 비밀이 담겨있는 책!
- 실제 있었던 체험담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
-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기면 즉시 소원성취 할 수 있다.
- 바로 조상靈을 만나보고 불가사의한 일을 체험해 보십시오!
- 누구나 한번 읽고 소장해야 할 화제의 필독서!
- 영계(靈界)의 실상을 파헤치고 소원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최고의 걸작!
- 종교지도자들이 이 책을 읽고 신도들에게 권해주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값: 12,000원 | 사찰 다량주문 환영

구입문의: 일강출판사 02)2233-5286, 2237-8543 / 입금계좌: 기업은행 267-017536-04-024 천우중